



산업보건 주요뉴스



안전보건공단, 위험요인 개선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도입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패트를 점검 후 지적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일명'Quick-Pass')을 새롭게 도입한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올해 약 4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의 긴급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매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을 통해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위험요인 개선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 5단계의 과정을 1단계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 방식은 공단이 현장점검(패트룰)에서 사업장의 추락·끼임 위험요인 개선을 지적하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 후 소요 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공단이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속지원 방식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 금액의 70%(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당 연간 1회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과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현장 '폭염 예방 설비' 미리 준비하세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여름철 제조 및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6명(16.6%)이 사망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여름 동아시아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상청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여름 매우 무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있다.

* APEC 기후센터 계절예측(22년 4월~9월) 자료

이에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 구입 비용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 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 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년도 지원 신청 방법은 기존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는 방식에서 기한 내 신청/접수를 받는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사전에 공모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폭염 재난 위험시기(6~9월) 이전 적시에 폭염 예방 품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여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그밖에 신청방법,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 경영실천을 선언하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과 함께 5개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1일 목요일 「장애인고용증진 및 ESG 경영실천 공동 협약·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선언식에는 고용부 박화진 차관과 공단 조향현 이사장을 비롯하여 (주)녹십자 김용운 인재경영실 상무, 롯데지주(주) 권오승 HR혁신실 인재전략팀 상무, 코웨이(주) 전현정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주)하림 최용호 노사협력실 상무, (주)한라 이계찬 인사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대기업집단 33개소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4개소 중 하나인 롯데그룹을 대표하여 롯데지주(주)가 실제 사례를 토대로 그룹 차원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다른 기업들과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확산 등 일상과 업무수행 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방역 및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주)녹십자, 코웨이(주), (주)하림, (주)한라 등 참석기업은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부 박화진 차관은 "ESG 경영이 대두되는 요즘, 오늘의 선언식은 기업인 여러분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고용부는 앞으로도 공단과 함께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 제도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자세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다양한 업종에서 각 대기업의 지주사들이 앞장서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며,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 ESG 경영의 기본이므로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 보기

: 산업보건 주요뉴스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소중한 일상 되찾아요!

국립재활원(원장직무대리 김완호)은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 중인 국민을 위해 재활 정보를 담은 영상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본 영상은 호흡 관리, 일상생활을 위한 피로 관리, 신체활동과 운동 회복, 인지와 삼키기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 5편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상당수는 후유증 없이 회복하지만, 일부는 발병 후 증상이 지속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등 국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한 후유증 조사(진행 중)에 따르면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 증상이 가장 흔하며 20~79% 환자에게서 확인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의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보도자료 (코로나 확진자 후유증 조사 추진 및 빅데이터 개방 (3.31,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본 영상은 더 많은 국민이 재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코로나19 격리 해제자를 위한 재활 안내서」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미디어 수용 사각지대에 놓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과 화면해설을 포함하여 제작되었으며, 제42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수)에 국립재활원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4.25)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이후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며(고시 제1호),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고시 제8호, 제9호).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